

서해선 복선전철 제4·5공구(T/K) 실시설계 적격심의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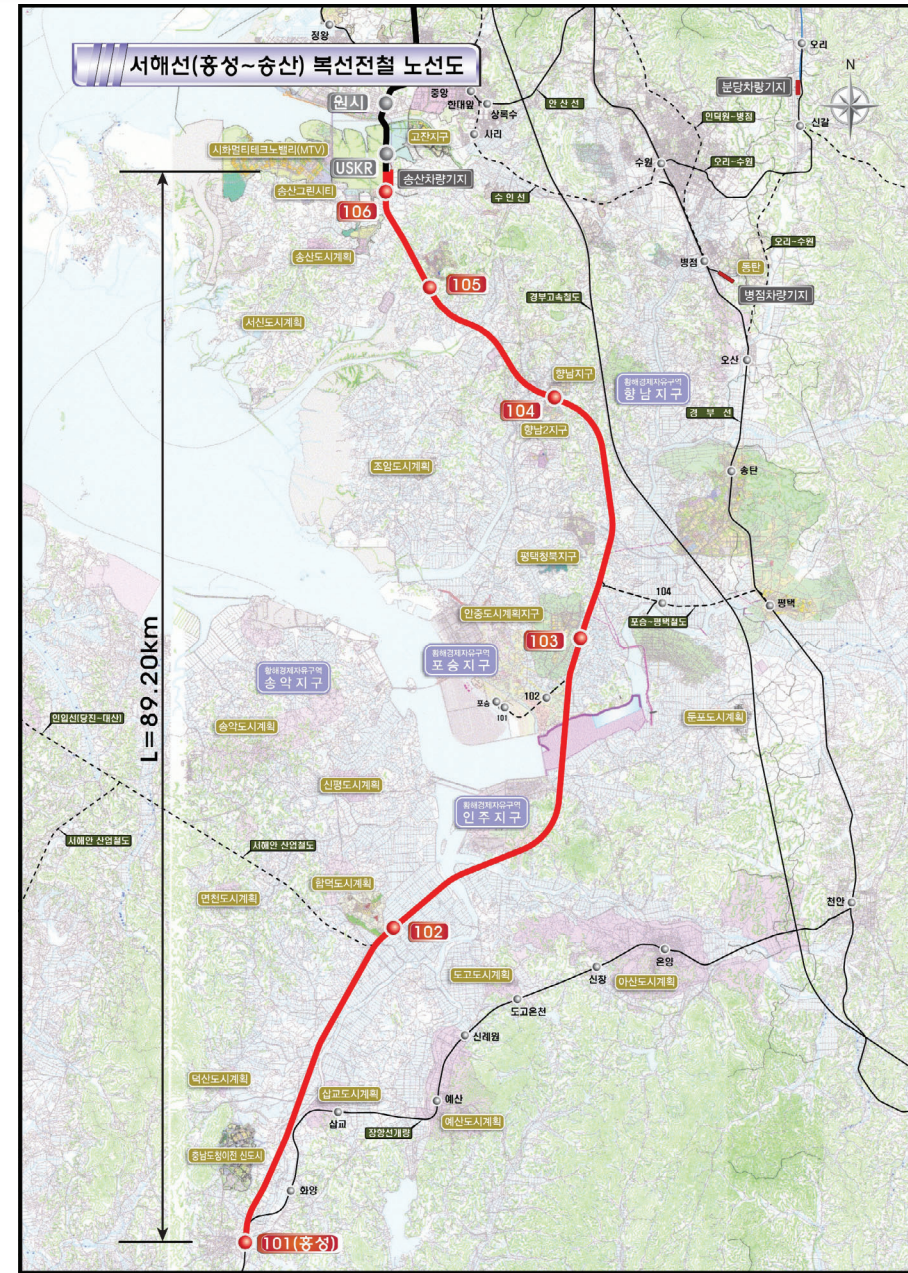
- 제출 성과에 대한 설계 적정성 의결 -

건설본부(본부장 김영국)는 지난 1일 공단 사옥 21층 회의실에서 관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시공 일괄입찰(T/K)로 발주한 서해선 복선전철 제4·5공구에 대한 실시설계 적격심의를 개최했다.

서해선 복선전철 2개 공구는 오는 12월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 '18년말 개통을 목표로 하며, 구간은 충남 홍성군에서 경기도 화성시 송산까지 총 89.2km(총사업비 39,284억원, 사업기간 2010~2018년)이며 최고속도는 250km/h이다.

이번 2개공구 T/K 심의는 충남 당진시 우강면에서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까지 16.6km의 실시설계에 대한 평가로서, 작년 10월 실시설계적격자로 선정된 대우건설(4공구)과 대림산업(5공구)이 제출한 성과물을 전문가의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설계의 적정성에 대해 의결했다.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은 기존의 철도수송체계를 경부축과 서해축의 2축 체계로 전환해 서해안권 지역개발 촉진과 남북축 간선철도망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경부고속철도 노후 신호설비 시설개량 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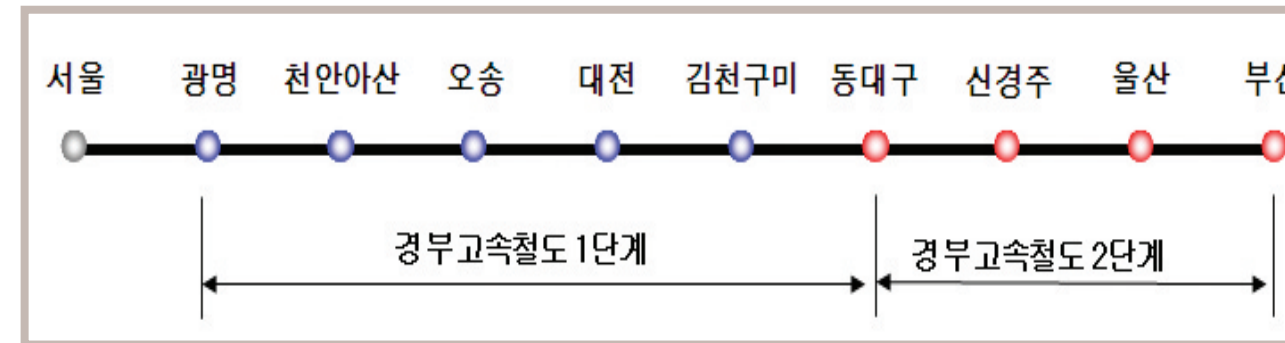
- 총 1095억원 투입... '14년말 완료 예정 -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윤)는 경부고속철도 KTX열차의 안전운행을 위해 1단계 구간(광명~동대구)의 노후 신호설비 개량공사와 2단계 구간(동대구~부산)의 신호설비 통합 감시시스템 구축사업에 총 1095억원을 투입해 '14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이달부터 본격 추진한다.

본부는 경부고속철도 1단계 구간 중 '98년에 설치된 시험선 구간(천안~대전)과 '02년에 설치된 광명~동대구 구간 내 신호설비의 내구연한이 도래함에 따라 궤도회로장치, 신호전환기, 안전설비(차축온도검지장치) 등을 개량한다.

이와 함께 경부고속철도 2단계 구간에는 신호설비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KTX 열차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통합 감시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본부 관계자는 "시설개량에 사용되는 주요자재의 장비 성능 및 품질 확보를 위해 경험이 있는 업체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계약체결을 완료했다"며 "해당 공사는 지역 및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



(단위금액 : 백만원)

구분	건명	대상	구간	사업기간	금액
자재 구매	신호전환기 구매	152대	경부 1단계	'12.10~'13.12	2,895
	궤도회로장치 구매	589개소	"	'12.10~'14.06	15,281
	역정보전송장치 구매	1개소	"	'12.10~'12	1,454
	차축온도검지장치 구매	14개소	"	'12.10~'13.12	5,890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11개소	경부 2단계	'12.10~'13.12	25,710
	신로변기능모듈 이종화구매	154조	"	'12.10~'13.12	8,488
공사	전자연동장치 개량(미발주)	19개소	"	'13.7~'14.12	7,839
	자동열차제어장치 개량(미발주)	2역	"	'13.7~'14.12	31,000
	궤도회로장치 개량공사	1식	경부 1단계	'12.10~'14.12	8,755
	신호전환기 철관장치 개량공사	1식	"	'12.10~'13.12	2,230
합계					109,542

경의선 복선전철 공덕~DMC 종합시험운행 개시

- 오는 12월 15일 개통... 공덕, 서강, 홍대, 가좌 4개역 신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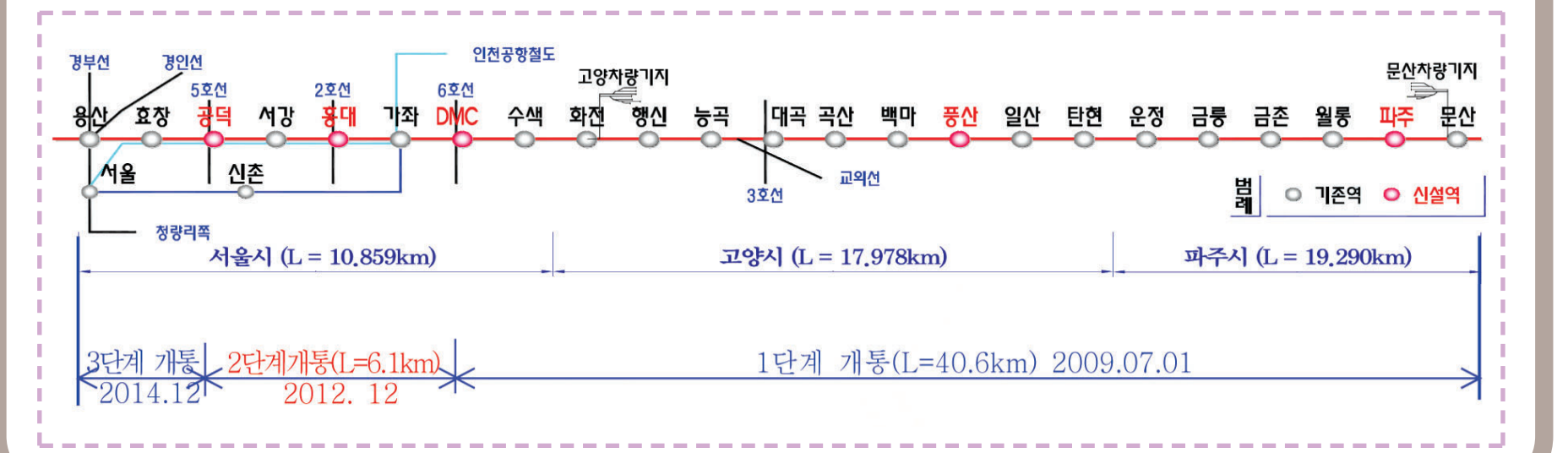
기술본부(본부장 최강윤)는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사업 내 공덕~DMC간(6.1km) 건설공사를 완료하고, 오는 12월 15일 개통을 위해 지난 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종합시험운행을 시행한다.

본부는 1개월에 걸친 종합시험운행기간 중 시설물 검증열차를 투입해 최고속도를 110km/h까지 증속하면서 선로, 전차선, 신호설비 등 철도시설물의 안전상태와 운영상의 이상 유무 등을 확인·점검한 후에 실제 승객을 싣고 운행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영업시운전을 하게 된다.

공덕~DMC 구간에 신설되는 공덕, 서강, 홍대, 가좌 4개역에는 1일 116회 전동차가 출퇴근 시간에 12분, 평상시는 15분 간격으로 운행할 계획이며,

소요 시간은 8분이다. 현재 문산~DMC역간 운행중인 경의선 전동차가 공덕역까지 연장운행함에 따라 공덕역에서는 공행철도 및 5·6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고, 홍대역에서는 공행철도와 2호선으로 환승할 수 있어 수도권 서북부지역에서 서울도심과 인천공항으로의 접근이 쉬워진다.

한편 경의선 용산~문산 복선전철사업(48.6km)은 '09년에 DMC~문산구간이 우선 개통됐고, 이번 공덕~DMC구간 개통에 이어 현재 공사가 진행중인 용산~공덕구간이 '14년 개통되면 용산~문산 전구간의 복선전철사업이 완료된다.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전차선로 본격 시공을 위한 시험시공 시행



호남본부(본부장 김계웅)는 지난 15일 호남고속철도 전차선로의 본격적인 시공에 앞서, 노반 4-1공구 토공구간에서 노반, 궤도, 시스템분야 등 전철주에 대한 시험시공을 하였다.

이번 시험시공은 시공성 및 경제성을 위한 분야간 인터페이스를 통해 토공구간 시공 계획이 변경(당초 : 아스콘 포장→전철주·신호주 시공, 변경 : 전철주·신호주 시공→아스콘 포장) 결정됨에 따라 전주 기초 굴착 및 건설을 통해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시공효율의 극대화 및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시행되었다.

호남고속철도 전차선로 공사는 오송~광주간 186km를 총 4개공구로 공사 발주하였으며 '12년 10월에 착수하여 '14년 4월 전차선로 가압을 목표로 시행되는 공사로 이번 시험시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험시공은 노반(성토구간)에 오거크레인 굴착 → 전주각입 → 콘크리트 타설 → 뒷 정리 순으로 진행하여 노반, 궤도, 시스템분야 등 관련분야 간섭사항을 연계해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는 방안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 본부장은 시험시공이 끝난 후, 참여한 관계자들에게 "호남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자 모두가 내가 아닌 우리라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분야가 합심해 완벽한 건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호남본부 박충원 기자)

IT시스템 통해 주요업무 상시 모니터링

- 업무지연 예방 및 처리시간 단축 등 업무생산성 향상 -

기획혁신본부(본부장 김영우)는 자산취득, 선급위탁사업비 정산 등 8개의 업무 처리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IT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약 520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모니터링의 핵심 기능은 주요 업무 프로세스가 업무처리 일정을 적정하게 준수하고 있는지, 업무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상시 점검해 지연업무에 대해서는 조기경보를 작동하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경영층에게 경영정보로 제공해 지연을 방지하고 업무처리를 지원하는 것이다.

본부는 자산취득 단계별 업무처리 일정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조치통보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산취득률을 26.2% 증가시켰고, 선급위탁사업비 조기정산을 유도해 약 4억5400만원을 정산 조치하는 등의 효과를 거뒀다.

정보관리처장은 "이번에 자산취득과 선급위탁사업비 정산 프로세스 등 업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우선적으로 모니터링 체계를 적용했으며,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문학' 과의 만남

- 직원대상 인문학 특강 실시 -

녹색철도연구원(원장 서성호)은 창조경영을 위한 인문학적 통찰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깊어가는 가을 직원들의 인문학적 소양과 정서함양을 위한 '인문학 특강'을 실시한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지난 6일 '영원한 스승, 공자'라는 주제로 동양철학 전문가 전호근 경희대 교수의 특강을 진행했다. 해외사업진출 등으로 직원들의 통합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 창조적 프로젝트 수행능력이 무엇보다 요구되는 시점에서 마련된 이번 특강은, 직원들의 창조적 변화 욕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로 12월에는 '영화, 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해 김영진 영화평론가의 특강이 예정돼 있다. 또한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영화음악을 실내악 4중주 선율로 만날 수 있는 작은 음악회를 병행해 직원들에게 인문학을 보다 친숙히 접할 수 있게 유도할 계획이다.

오양교 인재개발실장은 "이번 인문학 특강을 통해 직원에게 알려진 분야부터 인문학을 소개해 직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어, 내년부터는 좀 더 심도 있고 다양한 인문학 강좌들로 구성된 정규과정의 인문학 특강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자산개발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 업무능력 향상 위한 직무교육 시행 -

시설사업본부(본부장 강근식)는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3일간 공단 사옥 7층 교육장에서 공단 관리자산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12년 하반기 사업개발 전문가 과정' 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교육은 본사 및 5개 지역본부에서 자산관리 및 사업개발업무를 담당하는 23명의 직원이 참석해 ▲철도자산에 대한 개발사업의 이해, 부동산 공법 체계 및 부동산 개발사업의 성공과 실패 사례를 통한 타당성 분석 기법 이해 ▲철도건설 및 적용허가, 자금조달 실무, 개발계획 수립 및 인·허가 실무, 사례를 통한 개발사업의 이해, 국유재산법의 주요내용 소개 ▲부동산개발관련 조세 및 회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지 임대주택 이해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또한 자산개발 업무 추진 중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노하우 및 실패 사례 등에 대해 폭넓은 토론의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특히 부동산 개발의 성공과 실패 수업 중에는 행정수도 이전 지역인 세종시의 부동산 개발여건, 방법, 향후 발전 가능성 등에 대해 많은 질의가 이어졌고, 사례를 통한 타당성 분석기법 이해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 사업성에 대한 실습을 시행하는 등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사업개발 전문가로서 전문지식을 습득하는 기회를 가졌다.

교육을 주관한 김효식 자산개발사업처장은 "향후 교육에서는 사업개발관련 자료와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실제 사례 등을 보완해 더욱더 알찬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시설사업본부 정승 기자)